"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아직 얘기한 일 없다"

호남의 기대 감사하면서도 큰 부담 느껴
균형발전 지역재정 이관·인사탕평 중요
10월 재·보선 뜻 맞는 사람과 함께할 것
국정원 국조 NLL과 분리, 진실 밝혀야

서울취재본부=박지경기자

광주일보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인터뷰는 28일 오후 2시 상계동의 지역구 사무실인 '안철수의 정책카페'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지난 4월 24일 재·보선 당선 후 처음으로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까다로운 질문에도 불구, 시종 여유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질문에 답했다. 특히 호남에 관해서는 과도한 표현보다는 절제되고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원으로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 후 정치권에 대해 달라진 생각은 없는지.

▲당선된 지 100일이 다 돼 간다. 예전에는 비판적 시각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정치가 잘못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정치가 해야할 일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든지 나아가서는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수의 열렬 지지층에게만 간다. 그래서 중앙의 많은 이야기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대방을 공존의 틀 내에서 경쟁자로 보지 못하고 선악, 도덕적 대결로 본다.

-새 정치를 내세우는데 구호만 있고 새 정치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다. 간단하다. 없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 정치인들이 거짓말 안 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둘째 민생문제에 집중해서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모든 복잡한 사안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현재 (10월 재·보선지역으로) 확정된 곳이 포항밖에 없다. 확정 판결 나지 않은 곳에는 현역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치일정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확정 판결이 나면 거기에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 답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창당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사람부터 만나고 있다. 그릇을 만들어서 사람을 채운다는 생각은 안 한다. 1인정당은 성공 못 한다. 먼저, 뜻 맞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 가겠다. 내년 선거도 그때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웃으면서) 체중이 불고 있다. 끼니때마다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다 보니….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내지는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후보 얘기를 한 일이 있나.

▲그런 적 없다.

-신당 창당 등 정치일정을 소개해 달라.

▲제가 깃발을 들고 개인당을 만들면 속시원히 창당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만난 사람들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단일화 등으로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노원 재보궐선거 결과, 단일화 없이 독자적 행보에 낮은 투표율에도 60%대의 높은 지지율로 이겼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 30%가 새정치를 지지했다. 진보정당만 찍었던 사람도 동참했다. 이념 잣대보다 정치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영·호남은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중앙 눈치만 보고 지역의 요구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건강한 경쟁 상태가 많은 혜택을 준다.

-안 의원에 대한 호남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안 의원이 생각하는 호남은.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을 느낀다.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엄중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미국에서 80일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변화의 열망을 잘 이뤄야겠다고 결심하고 4월 재·보선에 출마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다. 5년 후 대선에 뛰어들어 진흙탕에 뒹구는 시간을 최소화해라, 박근혜정부의 지지가 떨어질 때 귀국하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한다면서 나중을 재면서 기회를 보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진흙탕에 구르면서 제 그릇의 크기도 알고, 보여주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 호남에서의 기대나 열망이 뭘까,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은 소외를 계속 받아오면서 발전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역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중요한 것 하나는 지역재정 부분이다. 지역행정은 많이 이관됐는데 재정은 이관 안 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결정하는 나쁜 구조다. 두 번째는 인재등용이다. 인재풀이 없다고 하기보다 먼저 등용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지역격차 해소는 시대의 과제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지역재정 이관과 인사탕평 즉 인재의 균등 등용이 가장 중요하다.

-대선후보군 등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과 가끔 만나고 통화는 하는지.

▲가끔 통화한다.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 전후 만났고 독일로 가신 이후 (국회의원) 당선 축하난을 집으로 보내서 감사의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오신다고 하니 한번 만나볼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외교 문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내적으로 인사문제는 못했다. 경제문제는 이대로 가면 되는가 하는 조그만 불안감 정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한다. 다만, 국정어젠다가 지금쯤이면 국민 머리에 각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또 중국·일본·미국·유럽 경제정책이나 상황 즉 4대 블랙홀에 우리나라가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안심하고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계획) 없이 가도 되는지 걱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 이후 여야간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 상징적 일이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국정조사가 열리는 이유도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아니냐. 엉뚱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번지더니, 사초 분실까지 이어졌다. 지금이라도 사건을 분리해서 원래 국정조사 목적으로 돌아가고 사초 분실은 사실을 밝히면 된다. 그 수사방법에 대해 저는 제3의 방법을 주장한다. 여야 대표뿐 아니라 국민대표도 참여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5년 후 대선에 출마하나.

▲현실정치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하면서 그릇 크기가 거기에 맞으면 거기에 맞게 정치분야에서 공헌할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질은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2인으로 할지 3~4인으로 할지,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떻게 정할지 등 현안이 많은데 엉뚱하게 한 가지만 얘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8~9월에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서울 상계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인 '안철수 정책카페'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미, 만신창이 됐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0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0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029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8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7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9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9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20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0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426-1511 남일동점(이카페이극장 옆):0534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46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36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763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763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763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7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